논어 11편 선진 10장 · 원문·풀이

顏淵死，門人欲厚葬之。子曰：「不可。」門人厚葬之。子曰：「回也，視予猶父也，予不得視猶子也；非我也，夫二三子也。」

독음 · 안연사 문인욕후장지 자왈 불가 문인후장지 자왈 회야 시여유부야 여부득시유자야 비아야 부이삼자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제자들이 안회를 후하게 장사하자 공자는 아들처럼 검소히 보내 주려던 자신의 뜻을 지키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顏 얼굴 안 / 淵 못 연 연 / 死 죽을 사 사 / 門 문 문 문

人 사람 인 / 欲 욕심낼 욕 욕 / 厚 두터울 후 후 / 葬 장사 지낼 장 장

之 갈 지 / 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不 아닐 불

可 옳을 가 가 / 回 돌 회 회 / 也 어조사 야 / 視 볼 시 시

予 자기 여 여 / 猶 어미 원숭이 유 유 / 父 아비 부 부 / 得 얻을 득 득

非 아닐 비 비 / 我 자기 아 아 / 夫 지아비 부 부 / 二 두 이 이

三 석 삼 삼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